

“놀며 배우는 마한의 비밀” 전남 최대 어린이박물관 문 연다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7일 개관

국립나주박물관이 마한 문화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풀어낸 체험형 공간을 선보인다. ‘안녕, 마한! 우리 마을 이야기’ 어린이박물관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7일 정식 개관한다.

해당 공간은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신축한 복합문화관 내에 조성됐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체험을 결합한 놀이형 전시로, 고대 영산강 유역 마한 사람들의 생활과 고분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마한의 일상을 체험하는 ‘풍요로운 나라, 마한’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려보는 ‘따뜻한 공간, 부엌’ ▲옥 장신구와 금동관 제작을 경험하는 ‘마한의 공방’ ▲독립 제작과 고분 문화를 다루는 ‘무덤에 담은 마음’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강과 들, 공방과 무덤을 오가는 체험을 통해 마한 문화를 입체적으로 접할

영산강 유역 마한생활
고분문화 체험 공간 조성
내달부터 유아·초·중
대상 교육 순차 운영



수 있다. 특히 복합문화관 창 너머로는 나주 신촌리 고분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시와 실제 유적이 자연

스럽게 이어지는 풍경이다. 관람 이후에는 고분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과 카페도 마련돼 있다.

개관 이후에는 마한 문화를 놀이와 탐구 중심으로 풀어낸 단체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본격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유치원·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만 5세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 5세 유아 탐험’ (4월1일-11월26일)은 영산강과 들판을 체험 요소로 활용해 마한 시대 생활을 놀이로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3-4학년용을 위한 ‘커다란 독립 이야기’ (4월2일-11월27일)는 독립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마한 고분 문화를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상설전시실과 어린이박물관 체험 공간을 연계한 탐구형 수업이다.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금·은보다 귀한 옥’은



시범운영기간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 모습.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옥 유물을 살펴보고 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속 동물 이야기’는 마한 시대 동물 모티브 유물을 중심으로 한 탐구 활동으로, 어린이박물관의 디지털 요소를 활용해 문화적 의미를 풀어나간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일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대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놀이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마한의 옛 땅에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박물관이 들어선 복합문화관은 전시·체험 공간 6848㎡와 300석 규모 강당, 3개의 교육실 등을 갖춘 전남 최대 규모 어린이 문화공간이다. /최명진 기자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자료 기증 연중 접수

전통·공예·생활문화 등 실물 자료 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으로 활용할 관련 자료를 연중 기증받고 있다.

기증 대상은 아시아 문화와 관련한 문화적 가치와 활용성이 높은 실물 자료다. 여기에는 아시아 전통문화, 의복, 식생활, 음악 및 공연, 공예와 예술, 종교, 신화·설화, 도시 문화, 건축, 세계유산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가 포함된다.

시민·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힌 자료는 ACC가 연구·전시·교육 활용 가능성과 보존 가치를 검토해 수증한다. 기증받은 자료는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전문 소장 시설에 영구히 보존하며, 전시를 비롯한 교육·연구·문화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은 ACC가 2017년 설립한 박물관으로, 아시아 문화와 관련한 자료로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왔다. 현재 박물관의 소장품은

아시아 29개국 자료를 포함해 1만5천여 점에 달한다.

기증 희망자는 사진을 포함한 '자료 기증 신청서'를 작성해 ACC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증 업무 담당자(062-601-4524, islescoop@korea.kr)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상욱 전담장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은 국내외 기관과 개인이 기증한 소장품을 토대로 지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기증을 통해 수집한 소장품은 기증하신 분의 뜻과 기억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영구히 보존하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우수 과학자와 함께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국립광주과학관, 27일부터 총 18회 진행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과학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금요일에 과학터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강연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해 2부제로 운영된다.

오후 6시30분 시작되는 1부 도입 강연에서는 일선 과학교사들이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과학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이어 7시부터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과학기



술자들이 강연자로 나서 최신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진로 탐색을 돕는 본 강연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UNESCO)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련 사전 강연을 확대해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회당 150명까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다. 회차별 강연 내용과 접수 일정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영화로 만나는 화가의 시간...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하정웅미술관 인문 프로그램

10월까지 매일 마지막 수요일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이 예술 영화를 통해 미술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풀어내는 인문 프로그램 ‘2026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를 운영한다.

2016년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매개로 예술가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조명하며 꾸준한 관람객의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는 미술사 거장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여성 예술가의 삶을 함께 다루며 구성의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프란시스코 고야, 윌리엄 터너,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등 잘 알려진 화가들과 세라핀 루이, 헬렌 셰르백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화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한다.

첫 상영작은 5월 ‘고야의 유령’이다. 18세기 종교재판과 프랑스 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인물의 변화와 비극적 사건을 프란시스코 고야의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4월29일에는 제임스 딘과 사진작가 데니스



스톡의 만남을 다룬 ‘라이프’가 상영되며, 5월27일에는 윌리엄 터너의 말년을 조명한 ‘미스터 터너’가 이어진다.

6월24일에는 독학으로 작업을 이

어간 여성 화가 세라핀 루이의 삶을 담은 ‘세라핀’을 만날 수 있다.

이후에도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헬렌 셰르백,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순차 상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며, 해설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돼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프로그램 기획자인 조대영씨가 강연자로 참여해 영화와 미술을 연결하는 해설을 맡는다. 상영 이후에는 실제 작품 이미지와 함께 표현 방식, 창작 배경을 짚는 시간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미술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원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묘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